

다양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체육 교과 지도 경험 비교

조기범¹, 문중호², 이희수^{3*}

¹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 ²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심리학과 박사후연구원,
³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조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Various Student-Centered Curriculum's Teaching Experiences Focusing on Physical Education

Ki-Bum Cho¹, Jong-Ho Moon², Hee-Su Lee^{3*}

¹Adjunct Professor, Division of Sport Science, College of Sport & Art, Hanyang University

²Postdoctoral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지도했던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클러스터, 꿈의 대학과 같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체육 교과목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태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지도하면서 획득한 수업 일지, 메모, 강의 계획서, 학생 소감문, 영상물을 바탕으로 6명의 학생 면담을 통해 생태학적 접근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공통점으로는 입시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저녁식사 시간과 중복된 수업시간에 의해 고민을 갖고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수업 계획의 요구 수준이 달랐으며, 수업 감독자의 관심과 역할이 상이했다. 또한 주어진 수업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적 기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업 개강 전 사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며 또한 수업 지원과 평가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주문형 강좌, 꿈의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qualitative improvement through various student-centered curriculum's teaching experiences focusing on physical education. For this, class diaries, memos, lesson plans, student reviews, and videos for the past four years (2017-2020)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four high schools in kyonggi-do, and six students were interviewed. The common features between each student-centered curriculum were to have many students with the purpose of entrance examination and with concern about time conflicts between class and their dinner. In contrast,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student-centered curriculum were the required level of writing lesson plan, the level of interest and role of a class supervisor, and educational expected effect of students under a given condition. In summary, pre-education experience should be required and class activity support and various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also needed.

Key Words : education on demand, university of dreams, curriculum cluster, student-centered curriculum,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Heesu Lee(daco00@ginue.ac.kr)

Received May 28,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June 11,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학생들은 더 이상 교수자의 지시에 의존하며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역량을 배양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이미 교육현장 전반에 걸쳐 실천되고 있다[1].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정부 교육정책으로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 이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방식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단순히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이론 혹은 기능을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 진로선택 혹은 직업탐색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3].

최근 교육부에서 제시한 초·중등교육의 경우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교와 학생의 수요에 맞춰 실행 가능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문형 강좌’로서 기존에 교사 수업 문제 혹은 불편성의 어려움으로 개설이 어려웠던 과목을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이다[4]. 주문형 강좌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 및 프로그램, 진로집중과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운영방식으로는 자율과정 확대를 통한 단위 학교별로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과학 실험, 외국어, 혹은 예체능과 같이 정규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단위 학교의 인적 및 물리적 환경 요인에 의해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접 지역의 타 학교와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를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한다[5]. 주문형 강좌와 운영방식 및 개설 과목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특정 지역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들이 물리적인 환경(예: 장소, 시설)과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다[6]. 2012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경기도 지역을 기준으로 5개교(5과목)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260개교(370과목)까지 확대되었으며, 2019년 1학기부터는 온라인 과정까지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7].

마지막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 혹은 교육기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공간과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습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꿈의 대학’이 있다[8]. 꿈의 대학은 학생 개인의 진로 및 적성에 맞춘 교육 경험을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다소 복잡한 운영방식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문형과 거점형으로 구분되며, 방문형의 경우 꿈의 대학 운영신청을 통해 선정된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직접 학생들이 방문하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의 개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며, 거점형은 교육청에서 선정한 지정시설로 강사와 학생 모두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단위 학교마다의 학사일정이 상이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짧은 8주 과정이 한 학기동안 제공된다. 2017년부터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학기에 1525개 강좌가 개설되는 등 최근 7개 학기 동안 7,065개 강좌에 총 14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9].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더불어 2025년부터 전국에 도입될 고교학점제가 실효성 있는 영향력을 교육현장에 펼치기 위해서는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클러스터, 꿈의 대학과 같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연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4]. 게다가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교육과정 명칭이 혼재되어 어떤 목적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10]. 단적인 예로 거점학교를 둔 채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교육과정을 경기도에서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서울에서는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과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인천은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으로 용어가 모두 상이하다[11]. 이렇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 명칭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여 잘못된 정보 습득 경험을 한 경우가 존재했으며, 이는 교육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2]. 그러므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제공 가능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특징과 현장에서의 실제 운영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로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경험에

대한 연구 2, 12], 고교학점제 실행과 한계에 대한 연구 [11, 13], 그리고 꿈의 대학의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14]가 있으나 주로 개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함의에 초점을 두었으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지도 경험에 대한 포괄적 탐색과 향후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지도 경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교육과정의 문서화된 목표 및 운영방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각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교육과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사-학교-교육청 사이의 통합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8-2020년 사이에 경기도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6명을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수 학생 2명, 꿈의 대학 이수 학생 2명, 그리고 주문형 강좌 이수 학생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수업시간 동안 적극적인 수업태도로 수업 상황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는데다 본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위한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기억 상자(memory boxes)를 활용하였으며 [15], 이는 중요한 인물 혹은 사건 경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수업 일지, 강의 계획서, 학생 소감문, 메모, 수업 관련 사진 및 영상물을 수집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들을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전환하기 위해 서사적으로 부호화(narrative coding) 작업을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지도 경험을 통한 비교’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며 연구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각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 (예: 시간, 비용, 수업준비)과 긍정 및 부정적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나열하며 기술하였다. 또한 각 교육과정의 비교과정에서 특정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연구자 개인의 관점 및 수업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방식을 활용하였다[16]. 다시 말해 연구자를 중심으로 미시체계(microsystem)에서는 학생, 교사, 관리감독자에 대해, 그리고 중간체계(mesosystem)에서는 학생-관리감독자, 학생-교사, 교사-관리감독자 간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외체계(exosystem)에서는 학교 공간 및 시설, 관리감독 기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연구텍스트 구성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20년 12월 경 줌(zoom) 화상 인터뷰를 통해 그들 모두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인당 약 6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면담은 질적 연구로서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으로 구성된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참여했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소감, 장단점, 주요 사건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7], 면담 자료와 연구자가 획득한 자료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단어 및 문장을 주제별로 귀납해 범주화(categorization)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렇게 범주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돌아가 면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3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

기억 상자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과장이나 축소된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학생 참여자들의 경험이 자기 중 기억 상자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억 상자 수집 단계로 다시 돌아가 이를 추가하거나 혹은 추가 면담을 요청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내러티브 연구 경험이 있는 1명과 체육 교사 1명, 그리고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스포츠 교육학 전공 교수 1명과 함께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구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분석한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억 상자의 내용이 사전에 수립된 연간계획서의 수업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혹은 계획되지 않은 활동인지 구분하여 최대한 학생 선

택형 교육과정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주 내 경험만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자료 선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가 특정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수업 이외의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익명처리 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는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함으로써 연구 윤리적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생태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경험의 공통점으로는 미시체계인 학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반면 차이점으로는 외체계인 학교 공간 및 시설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에 대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목적 자체가 학생 개인의 학습 선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미시체계 내에서 공통점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는 각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성, 성격, 동기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관리감독기관의 관심 및 시설의 접근성과 같은 외체계에 의한 차이점은 각 교육과정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3.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공통점: 미시체계

3.1.1 결국 입시를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본래 목적은 입시 위주의 과정 속에 매몰된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전 수요 과정을 거쳐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지원한 경우 개설 과목이 확장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강 목적은 본질적으로 문서화된 취지와는 벗어난 채 이수경력을 대학 입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상당수였다. 이는 각 선택형 교육과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조사한 수강 이유를 적은 메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솔직히 수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선택한 게 맞고 생활기록부에 한줄 넣으려는 생각 때문에 신청한 건 다들 비슷할 거예요.” (2020년 주문형 강좌 이수자 C)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에는 교사의 권유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1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 당시 메모를 보면 각 교육과정을 합하여 총 48명이 수강을 하였는데 교사의 권유에 의해 해당 강좌 신청을 결정한 학생들이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대학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장 교사들이 추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보다 교사의 의중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데, 평가내용의 정확성 보다는 다소 과장되더라도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유리한 서술을 학교에서는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식과 본래의 정책적 방향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에 많이 빠진 친구도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좋은 말만 써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2020년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수자 B)

그러므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단순히 이수 경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내실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교사교육 기회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보안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13].

3.1.2 수업을 위해 저녁을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 사정에 맞춰 보통 정규 교과시간 이후인 오후 6시 혹은 7시에 수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체육수업은 다른 교과목과 달리 신체를 움직여야 하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한 간식으로 대체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꽤 존재했다.

“교수자: 왜 저녁을 먹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던 건가요?”

학생: 저녁 바로 먹고 운동하면 토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2019년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수자 A)

게다가 수업 도중 특정 신체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바로 저녁식사 이후 참여에 따른 신체적 부담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다른 교과목에서는 수업에 영향을 끼칠 요소라 보기 어렵지만 체육 교과목에서는 수업 참여의 질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업 시간대가 저녁식사 시간과 겹치는데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는 이미 대학 야간 체육수업에서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8].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단위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책 마련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즉, 학교 중심의 편의적으로 지정된 시간 운영은 학생들에게 양적으로 확장된 기회만을 제공할 뿐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수업 질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체육 수업처럼 신체활동이 수반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기존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는 수업 시간을 두 번으로 나누어 1시간 30분씩 오후 8시 이후 시간대를 활용하거나 혹은 정규 수업 전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적인 시간대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3.2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차이점: 외체계

3.2.1 수업 관리감독기관의 나몰라라식 관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강사는 수업 계획과 지도운영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수업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및 감독자들은 따로 존재하여 운영된다.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의 경우 단위학교 교육과정 부에서 학생들의 불만과 건의사항, 교수자와의 의사소통 등 수업 지원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꿈의 대학은 교육청이 감독 책임기관으로 감독자들을 수업 장소로 보내 수업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한 교과 당 5명 이내의 교사들을 선정하여 교원인사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5명 이내에는 반드시 교감선생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수자가 경험한 A학교의 경우에는 업무 매뉴얼에 맞게 매주 수업시간마다 교감선생님이 교내에 머물며 수시로 체육관에 방문했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체육교사들 모두 체육부실에 머물면서 교수자와 함께 수업 진행 방식과 학생 관리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며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반면 B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선생님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련 체육교사의 얼굴조차 본 적이 거의 없었을 만큼 매우 무관심한 학교도 존재했다. 심지어 학교 체육관 출입키를 교수자에게 주어 체육관 시설관리의 업무까지 맡긴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소통의 부재 상황 속에서 교구 부족이나 학교 시설 관리 사정을 모른 채 수업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학교행정가의 무관심은 체육교사에게도 부

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샘, 학교 체육관에서 미리 몸 좀 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고 체육실도 닫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요?” (2017년 11월 1일 교육과정 클러스터 수강 학생 문자 메시지)

꿈의 대학의 경우 관내 교사들이 수업 장소로 이동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의 출석을 점검하는 역할을 통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꿈의 대학 교수자들의 자격과 신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관내 교사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개인 성향의 편차에 따라 수업 직전에 출석확인이나 교수자 확인 서명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업 종료 직후 교수자가 직접 관리 감독 대기실에 방문해 교수자 확인 서명을 하고 구두로 출석인원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관내 교사가 자리를 비워 문자 메시지로 출석확인을 하거나 교수자 확인 서명을 매주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몰아서 작성한 경험도 존재하였다. 꿈의 대학 관리 감독자들의 권한 및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관된 행동보다는 개인적 성향에 의해 수업 관리 감독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었다. 결국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관리 감독 체계는 교육과정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결국 관리 감독자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수업의 질과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과 같이 방과 후에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하여 관리 감독자 뿐만 아니라 교수자, 그리고 학생들까지 상호 감시체계가 이뤄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2.2 수업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수업 환경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같은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수업 운영 목표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각 교육과정 간에 상당히 존재하였다. 교육과정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으로서 타 학교 학생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전반적인 수업 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매 학기 수업 계획을 세우더라도 타 학교의 학사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여러 요인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수업 계획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요 시험 기간의 경우 한 달 넘게 수업 결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수업 일정의 불안정성에 의해 한 달 이상 결손 후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전의 수업 내용을 모두 잊거나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의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지도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목표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수업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반면 타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나누는 장점은 분명하게 존재했다 [10]. 특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 및 흥미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각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환경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만회 혹은 보완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앞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체력 단련실을 못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는 들어가는 사람을 조금씩 정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때문에 다들 운동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깐 혼자서라도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수자 B)

주문형 강좌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 및 적성은 교육과정 클러스터의 학생들과 차이가 없었으나 오로지 해당 학교의 학생들로만 이뤄지고 있어 외부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교수자가 학교 교사들로부터 쉽게 획득할 수 있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계획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존재했다. 반면 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보 공유의 원천을 교수자에게 주로 의지하고 있었다.

“담임쌤은 체육 쪽을 잘 모르고 체육쌤은 교사 쪽은 잘 아시는 거 같은데 다른 쪽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보를 듣는 게 다예요.” (2020년 주문형 강좌 이수자 D)

꿈의 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에 있어 편차가 더욱

심하였다. 우선 모든 수강생들이 각기 다른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자의 수업조성을 위한 노력과 수강생 개인 성향이 동시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시 상호작용 없이 학기를 마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위의 조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때는 수업 종강 후에도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도 하였다.

“교수자: 지금 몇 개 학교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에 모여 있는 거죠?

학생: 6개 학교요.

교수자: 주로 무엇을 하나요?

학생: 친구들끼리 수시 정보나 체육쪽으로 경력 쌓을 수 있는거 정보 주고받고 있고, 가끔 만나서 밥먹거나 영화 볼 때도 있어요.” (2019년 꿈의 대학 이수자 E)

다시 말해 꿈의 대학 경우에는 교수자의 수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과 학생들의 참여 의지에 따라 극단적인 수업 만족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마다 주어진 특수한 조건들(예: 참여 학교 수, 학습자 특성,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의 블렌디드 교육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업 전략의 필요성이 존재한다[19].

4. 시사점 및 결론

지금까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연구자가 획득한 다양한 자료 및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점으로 언급한 입시 수단으로서의 수강 목적 그리고 저녁 시간대의 수강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에 관련된 부분 모두 미시체계인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기대 혹은 겪었던 경험을 통한 감정은 유사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장점으로 평가하자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통합 모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반면에 각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차이점으로는 수업 감독기관 및 수업 조건과 같은 외체계의 요소로서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의 성패는 학생의 적극적 참여와 지도강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생-지도강사-교사-학교-교육청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및 협조 유무에 따라 달려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경험에 대한 결론 및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교육의 중요성이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입시를 위한 경력 목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예측가능한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 우선 수업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최소 1:1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경쟁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재신청을 위한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한번 기회를 놓치면 재신청을 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에 놓인다. 또한 꿈의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3학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과목이 매학기 개설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습 태도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나태함 혹은 안일함이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진학목적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학생들의 경우 실제 수업 태도에서 좋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수업일수에만 참여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일정 (예: 친구모임, 학원)에 따라 수업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수업 특성 상 수업도중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책임이나 권한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위한 최종 수강생을 선발하기 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수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 등을 높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수업 지원과 평가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을 살펴보면 정보공유에 대한 효과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0]. 보통 수업을 위해 개설된 단체 채팅방은 종강과 동시에 폐쇄가 되거나 어느 시점부터 정보 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보공유의 목적이 아닌 수업의 목적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 공유 창

구를 교육청 혹은 단위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설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매학기 누적되면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수강할 예비 학생들에게까지도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되어 공동교육과정의 효과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수업 관리 감독자들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선 연구 결과처럼 수업 관리 감독자들은 학교에서의 본인 역할 및 개인 성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독하기도 혹은 형식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리 감독자들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종강 후 학생들이 실시하는 강의자 및 수업 평가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수업에 대한 학교의 지원과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본 연구를 넘어서 학교 행정가와 같은 관리자의 관점에서 혹은 학습자와 같은 경험자의 관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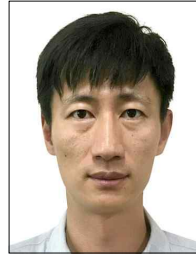
REFERENCES

- [1] B. S. Hong. (2016). Current Diagnosis for Convergence Education and Measures to Improve Convergence Capac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10), 13-35.
- [2] K. B. Cho, B. B. Ki & H. J. Lee. (2020). A Self-Study on the Physical Education Teaching Experiences of Student-Centered Curriculum. *Educational Research*, 77, 75-95.
DOI: 10.17253/swueri.2020.77.004
- [3] K. W. Lee, K. S. Baek & S. J. Lee. (2017). Key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elationship with the Idea of the Educated Person, Educational Goals, and Subject Competenc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2), 67-94.
- [4] J. J. Ju, W. J. Kim, H. M. Lee, D. B. Lee & S. J. Park. (2017). *The Direction for All Grades Credit-Based Elective Curriculum in High School*. Suwon: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 [5]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6). *2016 Curriculum Cluster Implementation Manual*. Suwon: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6] N. S. Park. (2016). Is a Tailored High School Curriculum Possible or Not?: A Case Study of a Curriculum Cluster. *The Journal of Curriculum*

- Studies*, 34(4), 49-69.
- [7] K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9 a). *School Curriculum and Press Release*. Ministry of Education (Online). <https://hischool.go.kr/info/officenes/view.do?nttid=16389#>
- [8] J. H. Park. (2020). Exploring Gyeonggi Dream Academy in Terms of Achievements and Improvement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58(1), 221-244.
DOI: 10.30916/KERA.58.1.221
- [9] K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9 b). *2019 Kyeonggi Dream Academy Manual*. Kyeonggi Dream Academy(Online). <https://udream.goe.go.kr>
- [10] K. B. Cho. (2018). The Explor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s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Cluster as Student-Centered Curriculum. *Educational Research*, 73, 151-167.
DOI: 10.17253/swueri.2018.73.008
- [11] K. W. Lee. (2018).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on Implement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2), 543-567.
DOI: 10.22251/jlcci.2018.18.12.543
- [12] E. J. Lee. (2019). A Narrative Inquiry on the Experience of Operating a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Cluster.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4(2), 89-104.
DOI: 10.15831/JKSSPE.2019.24.2.89
- [13] L. J. Kim & K. H. Seo. (2018). Curriculum Reform through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1), 113-138.
- [14] T. H. Choi. (2018).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niversity of Gyeonggi Dreams in terms of Innovative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567-575.
DOI: 10.21742/AJMAHS.2018.08.57
- [15] D. J. Clandinin & M. Connelly. (2004). *Knowledge, Narrative and Self-Study in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Dordrecht: Springer.
DOI: 10.1007/978-1-4020-6545-3_15
- [16] R. D. McKenzie. (1924). The Ec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Human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0(3), 287-301.
DOI: 10.4324/9781315087863-2
- [17] J. P. Spradley. (2016). *The Ethnographic Interview*. Illinois: Waveland.
- [18] H. J. Seo & M. Kim. (2017). Motiv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College Nighttime Libera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Wellness*, 12(1), 299-308.
DOI: 10.21097/ksw.2017.02.12.1.299
- [19] S. Y. Chang. (2020).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niversity-Linked Educ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Focusing on the Case of University of Dreams of Gyeonggi.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3(2), 186-194.
DOI: 10.35280/KOTPM.2020.23.2.21

조 기 범(Cho, Ki Bum)

[장학원]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생활체육과 학대학(체육학사)
- 2011년 8월 :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과(체육학석사)
- 2016년 12월 :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체육학(체육학박사)
- 관심분야 : 학생건강증진, 학교체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 E-Mail : rotc11542@gmail.com

문 중 호(Moon, Jong Ho)

[학생회원]



- 2012년 2월 :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교육학학사)
- 2017년 2월 : 광주교육대학교 초등체육교육(교육학석사)
- 2021년 8월 :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교육학 박사)
- 관심분야 :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교사 교육

· E-Mail : jongho@email.sc.edu

이 희 수(Lee, Hee Su)

[장학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2년 6월 :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 사범대학(문학 석사)
- 2015년 8월 :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교육학 박사)

· 관심분야 : 체육교사교육

· E-Mail : daco00@ginue.ac.kr